

6자 회담 타결의 경제적 영향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유병규

한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에 무엇보다 값진 선물이 전달되었다. 그동안 진통을 겪으며 애를 태우던 6자 회담을 통한 북핵 협상이 19일 극적으로 타결된 것이다. 이번에 6개국이 합의한 공동 성명은 외형적으로는 의장 요약이나 의장 성명보다 외교적 격이 훨씬 높은 문서로서 정치적이며 도의적 구속력을 갖게 되어 향후 협상의 추진력이 보다 강화될 것이다. 또한 내용면으로도 핵 문제 해결 원칙과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어 북핵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향후 한반도의 냉전 구도를 해소하는 새로운 외교적 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합의문에는 북핵 포기와의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서 대북 경제 지원 방안뿐만 아니라 북미, 북일간의 관계 개선까지 내포하고 있는 까닭이다. 앞으로 이번 합의안이 차질없이 실현된다면 단순히 북핵 문제만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유일한 한반도의 냉전 구도가 해체됨은 물론 동북아 지역의 평화 체제가 견고히 구축될 것이 기대된다.

한반도의 냉전 기운이 사라지는 것은 장기 침체의 골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게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우선 이번 공동 합의 내용의 구체적인 실현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국내외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크게 해소시켜 국내 경기의 본격적 회복을 이끄는 촉진제가 될 것이다. 북핵 협상의 타결은 국제 금융 시장에서 한반도에 대한 '안보 리스크'를 완화시켜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올리고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는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직간접 투자를 늘려 국내 주가의 보다 더 높은 고공행진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내 기업들도 외자 조달 부담이 경감됨에 따라 투자 증가 욕구가 자극될 것이다. 국내외 투자 증대와 주가 상승으로 고용이 늘고 국내 자산 소득이 증가하여 얼어붙은 소비 심리도 점차 풀어지게 되면, 국내 경기는 투자와 소비 증대에 의한 경제 성장의 선순환 고리가 다시 견고해짐에 따라 이제 본격적 경

기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앞으로 한반도는 동북아의 가장 큰 개발 수요를 일으키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투자처요 블루오션 지역으로 부각될 것이 예상된다. 우선 남북한의 경제 협력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7월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에서 결정된 소비재 산업과 자원 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고, 생명공학 분야의 과학기술협력, 공동 어로, 수산물 가공과 같은 협력 사업도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 들어 약간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금강산, 개성, 백두산 등 민간 차원의 대북 관광 사업이나 SOC 개발 사업이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될 것이 예상된다. 더 나아가 북미, 북일간 관계가 정상화되고 북한에 대한 중국이나 러시아 등 세계 각국의 경제적 관심과 지원이 구체화되면 북한 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은 동북아 지역 개발 사업으로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 이미 남북한을 경유하여 중국이나 러시아로 연결하는 철도와 같은 물류 사업과 이를 활용하는 러시아 등지의 자원 개발 사업은 동북아 각국이 구상 중에 있는 주요 사업들이다. 한반도가 또 다른 투자와 물류 중심지가 되어 세계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21세기 새로운 성장 지대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이번 협상의 타결로 마련되는 셈이다.

6자 회담 타결의 경제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정부와 기업의 차별적인 기회 선점 전략과 공동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대북 경제 협력의 주도권을 한국이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대북 경제 협력을 위하여 물적 인적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정부와 국내 기업의 사업권을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국 정부와 기업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이며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북한 특수 기대로 인한 과당 경쟁을 막을 수 있는 기준과 원칙도 설정해야 할 것이다.